

부처님 말씀 선율에 담아 '음성 공양'

부산시 다채로운 불교 음악회 열려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시위, 화물연대 총파업, 유가족등 등으로 메마른 가슴에 '음성 공양'으로 촉촉한 단비가 내렸다. 6월 25일부터 3일간 부산시내 곳곳에서 불교음악회가 잇달아 열렸다.

25일 오후 7시 30분 부산불교신도회관 5층 교육관에서는 '이종만 실장과 함께하는 수오음악법회'가 열렸다. 대한불교청년회 부산지구(회장 손정현)가 함께한 음악법회는 '찬불가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좋은 벗 풍경소리' 이종만 실장을 초청해 불교 음악의 가치와 음악인으로서의 자긍심을 듣는 시간도 함께 마련했다.

이날 음악법회에서는 이종만 실장이 직접 작곡한 '오늘은 좋은 날' '길 떠나자' '연꽃이 피었어요' 등 여러 찬불가를 노래했다. 이 실장은 노래와 함께 '좋은 벗 풍경소리' 앨범을 26집까지 제작하며 어려운 가운데 곳곳에 불교음악을 지켜온 진솔한 삶 이야기도 들려줬다.

이종만 실장은 '음악이 생의 전부'는 아니겠지만 '장들뱅이' '새벽길' '어느 보조 웨이터의 이야기' '자유의 바람' 등 한국 포크음악계 대표 가수로 알려져 있다.

26일에는 부산 금정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제2회 이순희 작곡발표

회-스승과 제자들이 함께하는 찬불합창'이 열렸다. 찬불음악만다라회가 주최하고 부산불교연합회와 불교합창단연합회가 특별 후원한 이번 음악회에는 작곡가 이순희씨가 작곡한 찬불가 22곡이 소개됐다.

이를 이순희 작곡가가 직접 지도하는 연꽃합창단, 일관도백양합창단, 노래와 친구들, 자비실천회합창단 등이 불러 더욱 뜻 깊은 자리였다.

연꽃합창단이 부른 '부처님 오신 날' (작곡 이순희, 작사 정산 스님), 일관도백양합창단이 부른 '정성' (작곡 이순희, 작사 강주자), 노래와 친구들이 부른 '부처님 오신 날' (작곡 이순희, 작사 지심화), 자비실천회합창단이 부른 '생신 축가' (작곡 이순희) 등 주옥같은 찬불가가 이어졌다. 2시간동안 이어진 발표회는 800여 객석을 가득 메운 관중의 기립 박수로 성대하게 막을 내렸다.

27일 금정문화회관에서는 또 한 번 음악으로 불법을 전하는 '음성 공양'이 울려 퍼졌다. 니르바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단장 김형진)가 주최하는 '난치성 질환 및 소아암 어린이 돕기 자선음악회- 선, 모차르트와 만나자'가 개최됐다.

니르바나 필하모닉의 자선음악회



6월 26일 제자들과 함께 직접 작곡한 찬불가들을 음성 공양하는 '제2회 이순희 작곡발표회'가 열렸다.

는 난치성 질환과 소아암 어린이들의 심각한 현실을 바로 알리고 치료비 마련을 위해 2003년부터 6회째 이어오고 있다.

그동안 음악회 수익금은 생명나눔실천본부와 한국혈액암협회 등을 통해 소아암 환우들의 치료비로 지원됐다. 누적 지원금만 1억원에 달할 정도로 꾸준한 성과를 내고 있다. 이번 공연은 책 <영화로 떠나는

불교여행>의 저자 월호 스님의 해설이 음악과 함께 이어지는 독특한 테마 연주로 진행됐다. '몸(기술), 마음(예술), 성품(천재성)' 등 세 가지 주제에 맞춰 <영화로 떠나는 불교여행> 중 영화 아카데미에서 영상을 발매해 영화와 음악을 함께 감상하는 독특한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 테마연주는 불교와 모차르트의 현대음악에서 공통점을 찾아내는 월호

스님과 니르바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기획공연으로 마련한 새로운 형태의 공연이다.

김형진 단장은 "이번 음악회는 어린 환자들과 가족들의 아픔을 음악을 통해 나누는 자비의 실천"이라며 "음악과 불교를 통해 불자는 물론 현대인의 메마른 감성을 채워 줄 문화비타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원 기자 hdbp@hanmail.net

해인사 '거창군 삶의 쉼터' 개관

노인·여성·장애인 사회복지전문기관 26일 열어

경남 거창군에 노인·여성·장애인 사회복지전문기관이 문을 열었다. 거창군이 총 사업비 100억여 원을 투입해 건립한 '거창군 삶의 쉼터(관장 심우)'는 910평의 부지의 노인·여성 복지관 1개 동과 595평 장애인 복지관 1개동으로 총 1500여 평 규모로 신축됐다. 실제 운영은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상임이사 대오이) 2월 4일 거창군으로부터 위탁받아 경남 합천 해인사(주지 현웅)가 맡는다.

'거창군 삶의 쉼터'는 노인, 여성, 장애인 통합 시설로 사회적 약자인 이들의 교육과 복지, 문화, 의료 등 다양한 분야의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노인·여성 복지관은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체력단련실, 여성상담실, 노래방, 주간보호센터, 경로식당, 요리교실 등이 꾸며졌다. 이곳에서 웰

빙 사찰음식, 사진 편집, 네일아트, 천연비누 만들기, 벨리댄스 등 다양한 강좌를 마련해 지역 여성들에게 문화·여가 생활을 제공하게 된다.

장애인 복지관은 주간 보호실, 수중치료실, 물리치료실, 작업치료실, 작은 도서관, 컴퓨터 교실 등으로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꾸며져 다양한 의료재활서비스를 지원하게 된다.

이밖에 장애 청소년을 대상으로 체험활동을 지원하는 '방과 후 교실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

심우 스님은 "거창군 지역 사회의 군민과 단체가 더불어 복지·행복 공동체를 만들고, 거창군 사회복지 발전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복지관 직원 모두가 최선을 다할 것을 거창 군민들께 약속드리고" 다짐했다. (055)945-2014 박지원 기자

종합 국제 불교센터 '첫 삽'

홍법사 600평 대응보전 건립 기공식

부산 금정구에 종합 불교센터가 들어선다.

홍법사(주지 심산)는 6월 27일 오전 11시 신항과 문화, 복지를 아우르는 대응보전 건립 기공식을 갖고 본격 불사에 착수했다.

대응보전은 대지면적 600평으로 대응전 300평, 요사채 300평에 4층 높이 규모로 총 사업비 100억 원이 투입된다. 현재 1차 공적 단계로 60여 원 정도 공사를 진행하고, 추후 대응전 옥상의 대불을 모시는 작업을 40억 원 규모로 진행해 완성할 예정이다.

이번 대응보전 불사는 기존 기도와 법회만을 위한 법당의 역할을 넘어 제사와 참선, 문화 기능을 두루 갖추게 된다.

요사채는 침대와 샤워시설을 현대식으로 완벽히 호텔에 못지않은 편안한 숙식 공간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원형으로 설계해 동·서·남·북 어느 한 방향이 아닌 모든 곳으로 두루 원만하게 흘러가길 바라는 뜻을 담았다.

본격 기공식에 앞서 대만 불광산사 주지 심정 스님 초청 법석이 마련됐다. 심정 스님은 "보시를 하려고 마음먹는 순간부터 공덕이 쌓여 다음 생애까지 이어 복으로 돌아

온다"며 보시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이어 진행된 석주 제막식과 대응보전 건립 기공식에서 주지 심산 스님은 "전통 양식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이 시대의 건축자재로 다양한 건물을 지어 후세에 물려줘야 한다"며 "다음 세대를 위한 대안이 포요에 큰 힘이 되길 바란다"고 원만 화합을 기원했다.

이날 기공식에는 대만 불광산사 주지 심정 스님, 해남 미항사 주지 금강 스님, 금정경찰서 박길수 서장 및 신도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엄숙하게 진행됐다.

박지원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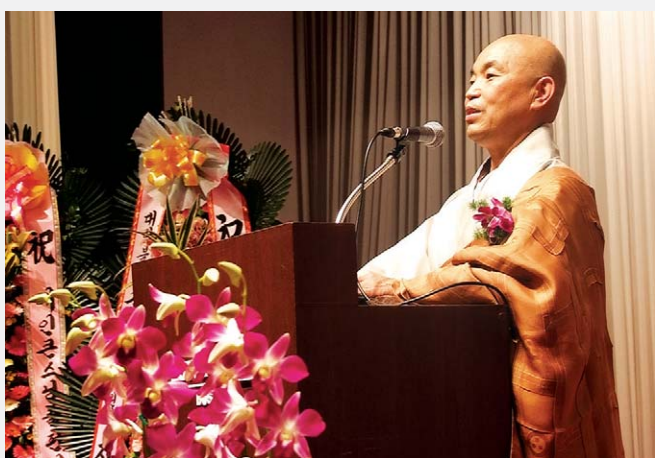
부산 미타선원

'초심자를 위한 참선강좌'

웅두산 미타선원(주지 하림)은 '초심자를 위한 참선강좌'를 연다. 7월 1일 개강해 8월 26일까지 2개월간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30분부터 2시간씩 진행한다.

이번 강좌에는 초심자가 알아야 할 기본 자세와 호흡, 마음가짐 등 기본강좌와 실참지도가 개설된다. (051)253-8687 박지원 기자

혜인 스님 '신심' '원력' 출판기념법회 '성황'



제주 약천사 화주 혜인 스님은 유쾌하면서도 불자들에게 꼭 필요한 생활법문을 수록한 <신심><원력> 두권을 출간하고 기념법회를 열었다.

신심은 불심, 원력은 보살의 마음 담아

제주 약천사 화주 혜인 스님의 저서 <신심>과 <원력> 출판기념법회가 6월 24일 부산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前 조계종 교육원장 무비 스님과 前 진주 극락선원장 금담 스님, 통도사 율주 혜남 스님 등 스님 50여 명과 허남식 부산시장, 신도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무비 스님은 서평을 통해 "한없이 기쁘고 환희로 가득 찬 책"이라며 "신심과 원력이 모든 의심체의

열쇠가 되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축사에서 허남식 부산시장은 "불심의 도시 부산에서 혜인 스님의 출판기념법회가 열려 감회가 새롭다"고 말했다. 금담 스님과 관음사 주지 지현 스님도 축사를 통해 "사람들을 감동시키면 혜인 스님의 법문이 엮어져 사부대중이 책으로 만날 수 있어 기쁘다"며 한마음으로 축하하는 뜻을 전했다. 한편 박근혜 국회의원이 화환과 축전을 통해 "직접 봐야 하는

대오급 공장이 어지러워 참석하지 못해 너무 죄송하다"며 "혜인 스님의 <신심> <원력> 출판기념법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린다"고 전했다.

혜인 스님의 인사에 앞서 스님의 수행 이력을 담은 100여 장의 사진이 수록된 영상을 상영했다. 이어 혜인 스님은 "불자들의 신심이 더욱 깊어지고 원력을 키워 가면서 열심히 살길 바라며 그동안 설명했던 내용을 모으고 다음에 <신심>과 <원력>이라는 2권의 책으로 엮었다"며 "이 책이 가정에는 화목의 꽃을 피게 하고, 여러분의 가슴 속에 희망과 용기를 싣듯 해 신심과 원력으로 보살의 강을 건너 모두가 부처의 동산에 오르는 성불도반이 되길 발원한다"고 말했다. 박지원 기자

장사 성공의 법구 금강삼고저

안되는 장사, 안되는 사업, 산재 사고도 예방



개업 선물로도 품격! 사업 성공의 선물로도 품격!
이 헛손님이 되면 하루종일 헛손님으로 장사를 힘들게 잡귀가 조화를 부린다. 부처님법구인 금강삼고저는 밀교법구로 만사를 방해하는 악귀와 잡귀가 보이기 전에 도망가고 화로부터 사업장의 안전을 지키며 사업장의 성공을 위해 동서사방에서 인연의 귀인들을 불러드리는 영험의 법구로 우리나라에서는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 거상들이 사업장에 걸어 놓았던 금강삼고저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유물로 볼 수 있다. 경제대국 일본의 각종 식당과 점포, 각종 사업장, 산재위험이 있는 사업장 등에 금강삼고저가 걸려 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다. 불심사에서 장사홍왕 및 사업번창과 산재예방의 축원불공을 마치고 시판하는 금강삼고저는 가로8cm 세로3.5cm에 벽에 걸게 고리와 수술이 달려있어 사업장 문안쪽 위에 걸어 놓으면 금니로 제작해 품위도 있다.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보시가격: 85,000원 (신용카드 분할가) 문의(02)741-4488 농협032-12-193445 이상하

장사와 사업 흥왕의 비방 법구
석당, 기든, 의류점, 보석상, 부동산중개소, 미미종실, 목욕탕, 다방, 정육점, 노래방, 주점, 모텔, 여관, 병원, 각종학원, PC방, 당구장, 서점, 인쇄소, 문방구, 기원, 복원방, 각종스포츠센터, 월드컵점, 분당사무소, 안경점, 신발매장, 전자제품매장, 미국상, 방앗간, 공점, 주유소, 산재사고 위험사업장 등 어려운 사업장의 비방.

영험의 구슬 보궁여의주

필승합격과 승진의 영험

여의주는 글자 그대로 원하는 것이 이루어 진다는 구슬이다. 전설에 따르면 아들형제를 데리고 어렵게 살아가는 어머니가 남섬부주 바닷가에 떨어져 있는 구슬두개를 너무나 아릅답고 신비해 집에 가져왔다. 집에는 관료가 되어 어머니를 편히 모시겠다는 형제가 시험만 보면 번번이 낙방을 하며 세월만 보내고 있었다. 아들에게 집에 오는길에 예쁜 구슬을 주었다고 보여주었다. 구슬을 본 형제는 참 신비한 구슬 갖어요, 어머니는 아들 형제에게 하나씩 주었다. 그후 매년 낙방하던 형제가 그해 관료에 등과되어 어머니는 소원을 이루고 건강장수 하고 관료가 된 형제는 큰 공덕을 쌓으며다복하게 살았다고 한다. 각종 불경 해설서를 보면 제석천왕과 아수라가 싸울때와 전륜성왕이 바위를 부술때에 남섬부주에 떨어져 변한것이라고도하고 용왕의 몸에서 나와 사람이 여의주를 집안에 두고만 있어도 독이 해칠수 없고 불속에 있어도 타지않고 권세와 명예를 얻는 공덕이 있다. 구슬로 사갈라 용궁에도 있고 여의륜 관세음부처님 두손에도 들고있어 중생들이 뜻한바가 이루어지는 비방의 법구로 삼고 있다. 시험을 보고나면 꼭 1-2점차로 낙방을 한다. 수험생들은 한두문

평생부자지갑 다라니 福 지갑

원하는 재물을 얻고 원하는 계획이 성취되는 영험

소중한 남편과 자녀에게 성공의 선물
소중한 아내에게 부와 사랑의 선물
부처님법구에는 세상은 동안 물질의 고통을 소멸하고 평생부자로 살게하는 대비신력(大悲神力)의 법구가 있는데도 미련한 중생이 깨닫지 못하고 법구가 무언지도 모르고 고통속에 살아간다. 불가에서는 인연법과 돌연법을 중요시 한다. 돈의 집인 지갑까지 연이되면 돈이 동서 사방에서 들어오지만 연이 안되는 지갑은 돈은 들어오지 않고 고통만준다. 불경, 다라니의 근본은 신묘장구(神妙章句)로 글자 그대로 신묘하게 묘한일이 일어나 해결된다는 뜻이다. 집안불공과 축원불공을 마친 다

제로 인해 1년을 또 고통속에 시험 준비를 하고, 승진시험도 승진심사날 심사위원의 마음이 누구에게 가느냐에 달렸다. 보궁여의주는 수험생에게 부처님의 지혜인 금강의 지혜를 주고 부처님 가피로 승리하는 비방의 법구다. 불광사에서 필승합격과 필승 승진을 위한 축원불공을 마친 보궁여의주는 길상 원목으로 품위있게 제작하고 수험생의 필승합격을 위해 성명과 생년월일을 알려주면 100원 축원불공을 해드리고 있다. 전화로 신청하면 택배로 보내준다. (신용카드분할가) 보시가격:95,000원 문의(02)741-4488 농협032-12-193445 이상하

라니복지갑은 동서사방에서 돈이 들어오게 하는 비방의 법구와 막혔던 모든 문제를 해결되게 하는 영험의 법구가 들어 있으며 음양의 조화로 원하는 소원이 성취되게 왕전연이 지갑 앞면에 들어있다. 고급소가죽에 금니는, 은나노 처리 까지한 일반 지갑과는 비교될 수 없게 내부도 잘 꾸며져 있고 불광사에서 지갑 사용하실 분의 물질의 소원과 원대한 계획이 성취되게 생년월일을 알려주면 100원 축원불공을 해드립니다. 남성용 금나노 반지갑 65,000원 여성용은나노장지갑95,000원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 드립니다. (신용카드 분할가) 문의(02)741-4488 농협032-12-193445 이상하